

●연중 제 24주일 강론

머리와 이론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체험으로도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껌껌한 어둠 가운데서 믿음으로도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따라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까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지식과 이론에 눈이 가려 현실 속의 생생한 하느님-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예수는 율법도 하느님도 모르는 사람, 따라서 하느님은 도저히 예수란 인물 편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어울리는 죄인의 무리에게 하느님은 더더욱 그들 편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자기들과 같은 의인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느님은 누구 편이어야 합니까?

186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던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노예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던 남부 11개 주가 연합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초반기 북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북부의 여론도 갈라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링컨은 하느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메릴랜드를 방문했을 때 한 참모가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 염려는 내가 하느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느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링컨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 편인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느님이 언제나 자신들의 편이라고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 편에 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마태 21,31)며 그들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예수님 주변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루카 15,1)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 싹이 납니다. 싹은 실천을 통해 점점 자라 나를 링컨처럼 큰 나무가 되게 합니다. 이제 온갖 새들이 ‘나’라는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남성을 위해서는 되찾은 양의 비유를, 여성을 위해서는 은전의 비유를,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부모를 위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십니다.

비유에서 양을 잃은 사람이나 은전을 잃은 사람이나 아버지나 모두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이 찾고야 맙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아담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먼저 곰곰이 계산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루카 14,28) 당신이 우리를 찾는 데 치려야 할 대가가 얼마나 될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계속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포도밭 소작인들에게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루카 20,13) 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하느님은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하나를 위해서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아혼아흠 마리 양이, 아흠 개 은전이, 큰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섭섭해할 만큼 잃은 하나에

집착합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태 18,14) 영화 ‘썬들러 리스트’가 생각납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갈 때 썬들러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공장에서 일할 유대인들의 명단을 밤새 작성하고 그 대신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신도 전범자이기에 떠나려 할 때 그 덕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를 전송하며 금니를 뽑아 만든 반지를 감사의 선물로 줍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말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썬들러는 철로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그동안 낭비한 재산과 끼고 있는 반지를 팔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하느님께서 타락한 소돔을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도시를 구하고 싶어 조심조심 하느님께 청을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느님도 소돔을 멸하지 않을 구실만 찾으셨겠습니까?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십이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요나 4,10--11)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혼아흠 마리의 양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잃은 한 마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처사가 웬지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이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보다 더한 통회의 눈물을 흘릴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합니다.

정 세라파아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9월 순교 성월 기도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듬고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임시 울뜨레야 모임
오늘 미사후 노재현 형제 보습학원에서 있습니다.

◎ 꾸르실료 251차 여성 주말 참가자(6명)
먼동이 트면 새날이 오듯 새로운 신앙체험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박 4일의 특별한 여정에 들어갈 새 꾸르실리스따들 입니다.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고기숙(아녜스), 김정현(아녜스),
노숙희(베로니카), 박명옥(도미니카),
윤명희(엘리사벳), 장혜라(크리스티나)

◎ 바뇌기도회
9월 19일 오후 7:30 / 박용대 형제집

◎성모회 야유회 (접수중)
일시 : 9월 29일(토)
장소 : 환상의 조지안 베이 관광
모집인원 : 46명(선착순)
참가비 : \$50 (식사및 행사일체)
문의 :이정숙 자매(성모 총무)

◎9월 구역모임
▶1구역: 오늘 미사후 허문애형제집
▶2구역: 9/23(일) 미사후 장소 추후공고
▶3구역: 9/28(금) 오후 6시, 박용대형제집
▶4구역: 9/18(화) 오후 7시, 장명길형제집
▶5구역: 9/15(토) 오후 7시, 김용호형제집
▶6구역: 9/22(토) 오후 7시, 김용하형제집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 맥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눈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9월18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24주간 화요일

◎ 한 신자 한 단체 가입하기 운동
우리 본당에는 다섯 개의 레지오와 바뇌기도회, 성서 100주간, 울뜨레야, 성소후원회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즐길까”

어떤 상황에서든
“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보자”라고 말하지 말고,
“자, 무엇을 즐길지 보자”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면 자신이 받게 될 마음의 기쁨이 자신이 겪을 불편을 덮고도 남을 것이다.

* 첫 발걸음도 떼기 전에 닥칠 고통을 말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끝날 때도 기쁘게 끝을 낼 수 있습니다.

2007-37 2007. 9. 16.
연중 제 24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이정숙 차주 해설 이우원

화 답 송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518) 선행 사람 아흔아홉
봉 헌 (211) 십자가에 재현되신
성 체 (172) 그리스도의 영혼
되 장 (286) 순교자의 믿음

독	서
9월 16일	김용하 김희선
9월 23일	고덕근 고세형
9월 30일	이우원 이희진
10월 7일	김근효 김순희

봉	헌
9월 16일	김현태 김진선
9월 23일	김용하 김희선
9월 30일	고덕근 고세형
10월 7일	이우원 이희진

2007년 9월 9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62.25
성전건립:	\$ 20.00
Total:	\$ 782.25